

# ‘자바의 파리’: 반둥 도시공간의 역동성

신정엽\*

## ‘Paris of Java’: Dynamics of Urban Space of Bandung

Jungyeop Shin\*

**요약** :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 지역인 반둥의 과거와 현재의 역동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상당수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하는 동남아시아에서, 반둥은 화산폭발로 형성된 반둥 분지 고원에 입지한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와 입지적 유리함으로, 반둥은 오래전에 정주체계가 형성되었다. 반둥은 오래전부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화산지형에 의한 비옥한 토지 등으로 차, 커피 등의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성장하였다. 반둥시는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 순다 족의 전통 문화, 네덜란드 식민통치와 관련된 유럽의 문화 전파 등으로 다양하면서 역동적인 도시 특성을 가진다. 현재 반둥은 빠른 산업화, 근대화로 반둥은 8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의류산업, 관광, 교육 분야 등에서 주목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주요어 : 반둥, 인도네시아, 자바 서부, 자바의 파리, 동남아시아 도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urban dynamics of Bandung both in the past and now, which is the second largest metropolitan region in Indonesia. Bandung is one of the major cities in Southeast Asia, which of them locate mostly in the tropic monsoon climate regions, and Bandung locates in the Bandung Basin with higher elevation formed by volcanic explosion. With the temperate weather due to higher elevation and the relatively locational advantages, Bandung has long history of settlements. In addition, with the massive tea and coffee plantations due to fertile soils from the volcanic deposits, Bandung region has been rapidly developed. Bandung city has a variety of complex urban characteristics from the traditional Islamic culture, Sunda's traditional culture, cultural diffusion during the Dutch colonial period. Nowadays, with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Bandung has grown to the large metropolitan region with more than 8 million population, and has major industries developed such as textile industry, tourism, education.

Key Words : Bandung, Indonesia, West Java, Paris of Java, Southeast city

### I. 서론

인도네시아는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술라웨시를 포함한 18,000개 이상의 섬들로 구성되며, 국토 면적 1,919,440km<sup>2</sup>, 인구 2억 7,352만 명의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이다(2020년 기준). 이중 인도네시아 중앙에 위치한 자바(Java)섬은 동서로 긴 형태로(면적은 126,700km<sup>2</sup>),

세계의 주요 화산지대가 관통하며, 열대몬순기후에 속한다. 자바섬에는 수도 자카르타, 자바 동부 주도인 수라바야(Surabaya)가 있으며, 특히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반둥(Bandung)이 위치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1).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140km 거리에 위치한 반둥은 자바 서부의 주도(state capital)이다. 다른 상당수 인도네시아 국토가 열대몬순기후에 속한 것에 비해, 해발고도 768m에 위치한 반둥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shin@snu.ac.kr)



그림 1. 인도네시아 자바섬과 반동

자료 : Google Maps.

후를 가지며, 이로 인해 근대 네덜란드 식민통치의 거점이 되었다. 반동은 18세기 이후 본격적인 플랜테이션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유럽인을 위한 휴양지으로도 조성되었다. 이 시기 유럽 스타일의 도시경관이 반동에 들어서면서 ‘자바의 파리(Paris van Java)’ 별명을 지니게 되었다(Naoko, 2012; Tarigan *et al.*, 2016).

반동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의류 등의 제조업, 관광, 교육 분야의 중심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통과 유럽 특성이 혼합된 도시성을 가지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이러한 반동의 역동적인 도시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도시지리, 지역지리 분야의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지리 연구의 상당수는 주로 영미권 선진국 대도시를 사례로 수행되었지만, 아시아 도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도시는 선진국 도시와 다른 자연환경, 역사,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신정엽 등 역, 2019; 신정엽·오동훈,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반동의 역동적인 공간성을 탐색하는 목적을 가진다. 즉, 반동에 대한 과거와 현재, 고유 전통과 유럽의 영향이 혼재된 도시공간의 다양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반동의 위치와 자연지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구릉 산지와 분지, 그리고 높은 해발고도의 지형, 기후는 반동의 지역 및 도시 특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데, 이러한 기후, 지형을 활용한 반동의 농업(예, 플랜테이션), 관광, 휴양지는 반동의 도시 역동성을 형성한다. 그런 다음 반동의 역사, 인구, 경제 등의 인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반동의 도시 역동성을 반동시(Bandung city)와 반동 대도시지역(Bandung metropolitan region)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 II. 반동의 지리적 특성

### 1. 반동의 위치와 자연지리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에 있는 반동시는 남위 6°, 서경 107°에 위치한다. 반동의 면적은 반동시를 기준으로 167.3km<sup>2</sup>이며, 반동 대도시지역을 기준으로 1,876km<sup>2</sup>이다. 반동의 인구는 반동시 기준으로 2,444,160명이며(인도네시아 4위), 대도시지역 기준으로는 8,357,393명이다(인도네시아 2위, 2020년 센서스 기준). 그리고 인구밀도의 경우 반동시는 14,609인/km<sup>2</sup>이며, 대도시지역은 4,453인/km<sup>2</sup>이다.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인 반동은 서부 자바(West Java)의 주도이기도 하다. 반동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연환경, 온화한 기후로 생활에 매우 유리하며, 최근 의류업, 교육, 첨단산업, 관광업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Firman, 1996; Tarigan *et al.*, 2016;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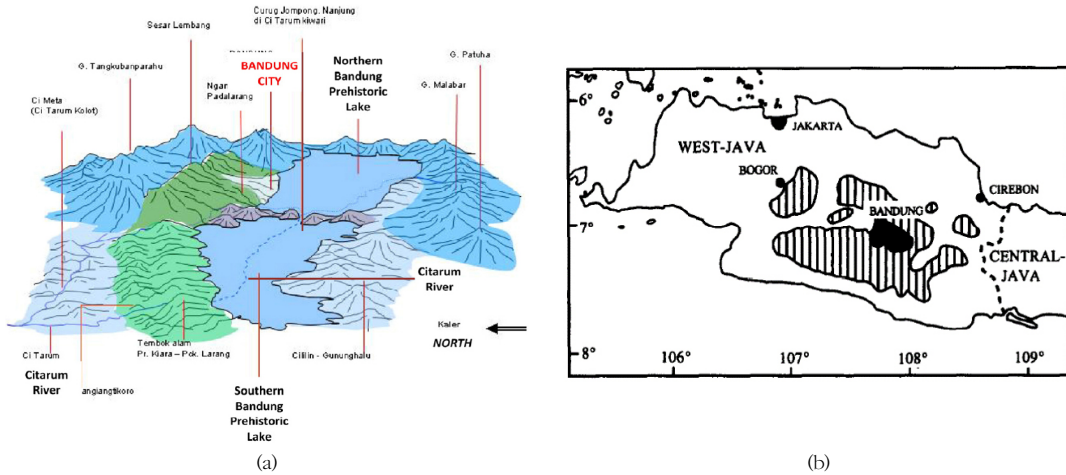


그림 2. 선사시대 반둥 호수의 분포(a)와 반둥 분지의 분포(b)

\* (b)에서 검정색 폴리곤이 반둥 분지를, 세로 선 패턴의 폴리곤은 주변의 화산 고원을 표시함.

출처 : Dam *et al.*, 1996; Tarigan *et 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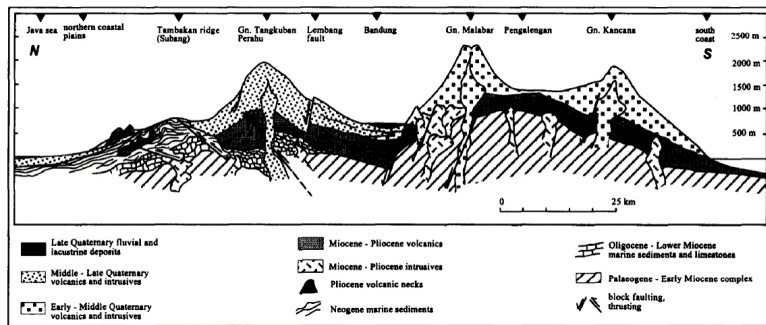


그림 3. 반둥지역의 지질 단면도(남북 방향)

\* 단면도(왼쪽은 북쪽, 오른쪽은 남쪽 방향) 중앙에 반둥시가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고도 약 770-2,400m에 위치함.

출처 : Dam *et al.*, 1996.

반둥은 고대 화산분출의 결과 형성되었다. 즉, 신생대 제 4기인 약 55,000년 전 고대 순다산(Mount Sunda)의 두 차례 화산분출<sup>1)</sup>로 치타룸(Citarum) 강의 유로가 막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반둥 호수(Lake Bandung)가 형성되었다. 반둥 호수는 BC 2만 년 전까지는 존재하였지만, 호수의 물이 증발되면서 현재의 반둥 분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 반둥 분지는 동서 방향 60km, 남북 방향 40km 거리의 크기(2,340km<sup>2</sup>)의 면적을 가지며, 서쪽은 파달라랑(Padalarang), 동쪽은 나그렉(Nagreg), 북쪽은 팡꾸반 프라후(Tangkuban Perahu), 남쪽은 말라바산(Malabar)에 이른다(Dam *et al.*, 1996; Tarigan *et al.*, 2016; 위키피디아; 그림 3).

즉, 반둥 북부에는 순다(Sunda)-팡꾸반 프라후<sup>2)</sup> 화산 복합체가 위치하며, 근처에 렘방 평원(Lembang plain) (해발고도 1,200m)과 렘방 단층이 있다. 반둥 분지에는 중앙에 위치한 반둥시(Bandung city) 외에도, 치마히시(Cimahi city), 반둥군(Bandung regency)의 일부, 서부 반둥군(West Bandung regency)의 일부, 수메당군(Sumedang Regency)의 일부가 위치한다. 반둥 분지에는 치타룸(Citarum) 강이 흐르며, 이 강의 지류인 치카퐁둥(Cikapundung) 강은 반둥시를 남북으로 관통한다. 그리고 반둥의 북부, 남부에는 화산쇄설물을 포함한 비옥한 토양이 분포하여 쌀 및 과수 농업, 차, 커피, 담배 플랜테이션이 많이 이루어졌다(Dam *et al.*, 1996; 위키피디아).



그림 4. 위성사진으로 본 반둥시와 반둥 분지

\* 반둥시(빨간색 선으로 경계 표시)는 반둥 분지 중앙에 위치하며, 산지로 둘러싸여 있음.  
 자료 : Google Maps.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자바섬에서는 화산활동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화산지형들이 자바섬을 동서로 관통하는 선형의 배열로 분포한다(그림 5). 이 중 반둥의 주요 화산지형으로 북부의 망구반 프라우, 탐포마스(Tampomas), 그리고 남부의 파투하(Patuha), 와양(Wayang), 윈두(Windu), 다라랏(Darajat), 카와 카모장(Kawah Kamojang), 카라하-탈라가 보다스(Karaha-Talaga Bodas) 등이 분포한다(Setiawan *et al.*, 2018). 반둥의 대표 화산인 망구반 프라우는 용암류, 화산쇄설물이 교대로 층을 이루어 퇴적된 성층화산이며, 약 19만 년 전 형성된 순다 칼데라가 있는 산 정상(높이 2,084m)에는 라투(Ratu), 우파스(Upas), 도마스(Domas) 분화구가 있으며, 2019년에도 화산이 분출되었다(Smithsonian Institution National Museum of National History, Global Volcanism Program).

반둥은 열대몬순기후 지역에 위치하며, 기온이 연중 20°C 이상 유지된다. 그러나 반둥은 높은 해발고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를 가지며(예, 같은 자바섬의 자카르타보다 기온이 약 3~4도 낮음), 기온 편차도 적은 편이다. 한편 반둥의 연평균 강수량은 1,838mm이며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다. 건기인 7~9월에는 월 평균 강수량이 50~70mm 정도이며, 우기인 11~3월 동안에는 월평균 200mm 이상 지속된다. 연평균 강수량은 자카르타

(1,815mm)와 큰 차이가 없다(표 1).

그림 6은 반둥의 토지피복 현황을 나타낸다. 이 지도는 ESRI의 Land Cover 2020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 데이터로서, 10m 해상도의 인공위성 이미지(ESA Sentinel-2 imagery)를 가공한 것이다. 지도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도시화 지역(Built area)에 반둥시가 위치하며, 그 주변으로 경작지(Crops)(주황색으로 표시)가 분포한다. 그리고 도시화 지역, 경작지를 산지, 산림(Trees)(녹색으로 표시)이 둘러싸고 있다.

## 2. 반둥의 인문지리

반둥 분지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농업에 유리하며, 약 6,000년 경 이미 취락이 형성되었다. 반둥은 순다(Sunda) 족을 중심으로 정착되었으며, 역사적으로 타루마나가라(Tarumanagara) 왕국, 쿠닝안(Kuningan), 갈루(Galuh) 왕국, 순다(Sunda) 왕국 등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다가 17세기 초 네덜란드가 바타비아(현재 자카르타)에서 영국을 몰아내고 자바섬을 지배하였는데, 이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Dutch East Indies Company)<sup>3)</sup>가 설립되었고, 자바를 지배하던 마타람(Mataram) 왕국을 몰아내었다. 17, 18세기 반둥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도로 차, 커피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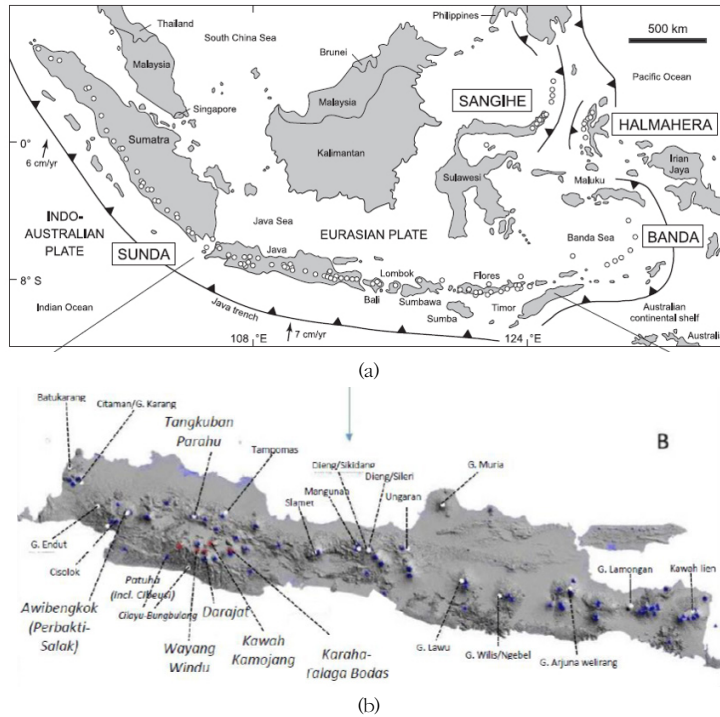


그림 5. 인도네시아의 화산활동 발생 분포(a)와 자바의 화산 발생 분포(b)

출처 : Gertisser *et al.*, 2012; Setiawan *et al.*, 2018.

플랜테이션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발전하였으며, 인구도 증가하였다(Tarigan *et al.*, 2016; Chang and Hasanah, 2020; 위키피디아). 1810년 동인도 회사는 통치 목적으로 바타비아-반둥 간 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자바섬 서해안의 안예르(Anyer)와 동해안의 파나루칸(Panarukan)을 연결하는 “Great Post Road(De Grootte Postweg)”라는 대규모 도로 건설 프로젝트(총 길이 1,000km)의 일환이었다(그림 7). 이로 인해 반둥은 중요한 내륙 중심지가 되었다(Tarigan *et al.*, 2016;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고 1880년 바타비아-반둥 간 철도 건설 이후 인구가 급증하였으며, 플랜테이션, 서늘한 기후 등으로 반둥에 많은 유럽인이 정착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아름다운 구릉 경관을 가진 반둥 북부에 정착하였다. 반둥지역에 유럽인은 1846년에는 9명이 정착하였다가 1893년에 들어서면서 500명으로 급증하였다. 1905년에는 유럽인의 인구가 2,00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당시 반둥시 전체 인구는 17,000명이었다. 반면 인도네시아인도 반둥에 본격적으로 정착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남부에 집중되었다. 이처럼 북부의 유럽인, 남부의 인도네시아인의 정착

이 지속되면서, 반둥은 정치, 인종, 경제 측면의 공간 분리가 고착화되었다(Soemardi and Radjawali, 2004; Tarigan *et al.*, 2016; Nurwulandari and Kurniawan, 2020).

1906년 반둥시는 동인도 회사 총독 반 호이츠(van Heutsz, 재임기간 1904-1910)로부터 독립 행정구역으로 인정받아 반둥군(Bandung Regency)에서 분리되었다. 이 시기 반둥은 플랜테이션 소유주를 위한 휴양도시로 발전하였으며, 유럽 스타일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 카페, 부티크 등이 들어섰다. 또한 유럽양식의 계동사테(Gedung Sate), 국방부 본사 등이 건립되었다. 이처럼 유럽 도시경관의 색채를 띠면서 반둥은 “자바의 파리(Paris van Java)”, “열대의 유럽(Europa de in Tropen)”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바타비아를 대신하는 새로운 식민통치 수도로 반둥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바타비아가 무더운 열대기후 및 과밀, 혼잡한 대도시 문제가 심각한 반면, 반둥은 온화한 기후, 쾌적한 공간 등 많은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고, 대신 반둥은 1925년 서부 자바의 주도로 지정되었다(Naoko,

표 1. 반둥과 자카르타의 월 평균기온과 강수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년
반둥 평균기온(°C)	23.3	23.1	23.3	23.6	23.3	22.8	22.5	22.8	23.3	23.6	23.3	23.3	23.2
자카르타 평균기온(°C)	26.1	26.1	26.4	27.0	27.2	26.7	26.4	27.0	27.0	27.2	27.0	26.4	26.7
반둥 강수량(mm)	240	255	239	143	116	102	69	56	50	151	200	215	1838
자카르타 강수량(mm)	300	294	210	147	132	95	63	43	66	110	142	208	1816

출처 :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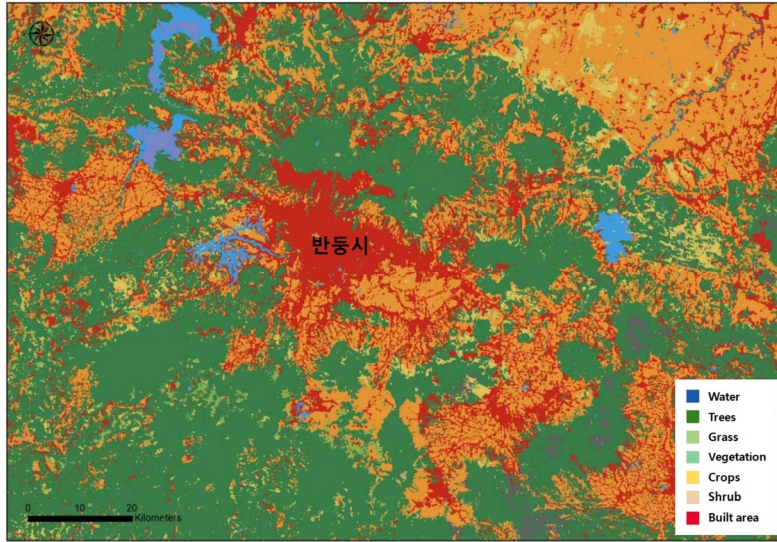


그림 6. 반둥의 토지피복 현황(2020)

자료 : ESRI Land Cover 2020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여 연구자 제작.



그림 7. 자바섬 Great Post Road의 경로

출처 : 위키피디아.

2012; Tarigan *et al.*, 2016; Permana and Wijaya, 2017; Chang and Hasanah, 2020; Nurwulandari and Kurniawan, 2020).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에도 반둥은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였다. 한 예로, 1955년 일명 반둥회

의<sup>4)</sup>로 알려진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Asian-African Conference)가 반둥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는 냉전 시대 비동맹 운동을 위한 최초의 시도였다. 그리고 이 반둥회의의 5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 반둥, 자카르타에서 다시 아시아-아프리카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15년에는

표 2. 반둥의 산업부문별 총생산의 비중(2006-2012)

(단위: %)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농업	0.30	0.26	0.20	0.21
제조업	27.80	25.72	24.38	22.55
전기, 가스, 상수	2.22	2.26	2.31	2.35
건설	4.42	4.31	4.67	4.86
상업, 관광	39.52	40.09	40.61	41.67
물류, 통신	11.22	11.70	11.97	12.47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	6.56	6.41	6.23	6.64
기타	7.97	9.22	9.64	9.25

출처 : Tarigan *et al.*, 2016.

반둥에서 25개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모델을 선언하였다(Tarigan *et al.*, 2016; Chang and Hasanah, 2020).

한편 경제 측면에서 반둥은 자바 서부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과거 농업이 기반이었던 반둥은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 중 제조업은 전자, 가구, 의류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반둥은 ‘의류산업의 수도(textiles capital)’로도 알려지는데, 현재 섬유, 의류산업은 반둥시 제조업 고용의 1/3, 반둥군의 2/3를 차지한다. 또한 반둥 대도시지역에 입지한 섬유 분야 기업들은 서부 자바 생산의 약 40%를, 전국의 1/4를 담당한다. 이와 연계하여, 반둥은 최신 패션 아울렛, 부티크 산업으로도 유명하다(Firman, 1996; Tarigan *et al.*, 2016; 표 2).

2013년 이후 반둥에는 여러 신산업 중심지들이 조성되었는데, 예를 들어 비농자티(Binongjati)의 니트 산업, 치골데와(Cigondewah)의 의류산업, 수치(Suci)의 티셔츠 및 의류 산업, 치햄펠라스(Cihampelas)의 청바지 산업, 치바두유티(Cibaduyut)의 신발 산업, 치분투(Cibuntu)의 두부 및 콩 발효 산업, 수카물야/수카자디(Sukamulya/Sukajadi)의 인형 산업이 있다. 또한 반둥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최근 항공, 군수, 통신업 등의 첨단산업도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금융 부문도 1980년대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급성장하였는데, 예를 들어 금융 부문은 반둥 전체 산업의 12.5%를 차지하며, 연평균 3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Firman, 1996).

반둥의 경제는 현재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점차 감소하는 반면, 관광, 교육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2). 반둥의 경제에 관광은 매우 중요하다. 관광지로써 반둥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반둥은 자카르타와 가까이 위치하여 많은 국내의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다. 둘째, 반둥의 특색있는 자연환경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서늘한 기후의 반둥은 휴양지로서 각광받으며, 화산, 칼데라, 온천 등의 화산지형 등도 주요 관광자원이다. 또한 반둥 주변의 산림에서 청정자연을 즐길 수 있으며, 고산기후와 화산지형을 이용한 플랜테이션도 주요 관광자원이다.<sup>5)</sup> 셋째, 반둥의 산업, 문화도 주요 관광자원이다. 반둥의 의류산업 발달과 연계된 아울렛, 쇼핑몰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sup>6)</sup> 그리고 반둥 중심에는 알룬 알룬 광장, 아시아-아프리카 거리, 브라가(Braga) 거리 등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은 흡사 유럽 도시 경관을 볼 수 있으며, 순다 족의 전통유산도 존재한다(예, 앙클롱을 이용한 전통 공연)(Tarigan *et al.*, 2016; Permana and Wijaya, 2017).<sup>7)</sup>

반둥은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 중심지로 알려진 반둥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1848년 반둥에 최고 교육기관인 School for Indonesian Teacher(Hollandsch Inlandsche Kweekschool, HIK)가 설립된 이후 고등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1920년에는 인도네시아 최고 대학의 하나인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ITB)의 전신인 Technische Hoogeschool (THS)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많은 대학이 설립되었다(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3대 대통령 하비 등이 이 대학 출신임). 그리고 1954년 설립된 Indonesia University of Education(UPI)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사범대학이며, 1957년 설립된 Padjadjaran University도 의학, 법학, 커뮤니케이션, 경제 분야에서 최고 대학이다. 2012년 Bandung BPS에 따르면 반둥에는 약 168개 대학이 분포한다(Firman, 1996; Permana and Wijaya, 2017; 위키피디아).

### III. 반둥의 도시 공간

반둥은 19세기 후반 이후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 영역도 빠르게 확대되었다. 반둥의 도시화는 통신기술 발달 측면에서 5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Lim, 2002), 첫 번째는 1900년대 초반까지의 “도보의 도시(walking city)”의 시기이다(그림 8). 이 시기는 도보가 주요 이동 수단으로 도시의 범위는 3~6km 반경으로 한정되었지만,

말, 자전거 이용으로 도시공간이 점차 확대되었다. 두 번째 “중심성의 도시(centralized city)” 시기에는 교통,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 영역이 확대되었다. 과거 전신 서비스가 반둥 시내에서 처음 시작된 것과는 달리, 전화 서비스는 반둥시가 아닌 반둥군에 먼저 설치되었다. 즉, 1895년 최초 전화회사인 Preanger Telefoon Mij가 반둥 북부 램방의 차 플랜테이션 소유주인 Bosscha에 의해 설립되었다. 초기 가입자는 주로 플랜테이션이 수행되던 프레앙가(Preanger) 지역 주민이었는데 반둥 시내의 소식을 빨리 접하였으며, 반둥시와 교외지역간 연결이 긴밀해졌다(Lim, 2002).

세 번째는 “농업의 도시(agricultural city)” 시기로, 차, 커피 등의 플랜테이션이 본격화되었다. 반둥시의 주변 지역에 플랜테이션이 활성화되었으며, 반둥 시내와 플랜테이션 재배지 간의 통근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네 번째는 “산업화 도시(industrial city)” 시기로, 반둥 대도시의 교외지역에 제조업 중심지들이 조성되었고(예, 파달라랑, 바투자자르(Batujajar), 치마히, 다유꼴롯(Dayehkolot), 반자란(Banjaran), 마자라야(Majalaya)), 이들 중심지는 교통, 통신망을 통해 반둥 시내와 공간 연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더불어 주거의 교외화도 확대되었다. 마지막은 “통신의 도시(telecommunication city)”로 불리는 시기로, 첨단 통신 기술 발달, 휴대폰의 대중화로 입지 자유가 증가하면서 대도시 영역이 더 확대되는 동시에 공간 연계도 강화되

었다(Lim, 2002).

이러한 반둥의 도시 공간과 관련하여, 반둥시와 반둥 대도시지역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반둥시의 공간 특성

반둥시(Bandung city)는 반둥 대도시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면적은 167.3km<sup>2</sup>이다. 반둥시는 30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장 넓은 지역은 게데바게(Gedebage)이며(9.58km<sup>2</sup>), 가장 작은 지역은 아스탄야 안야(Astana Anyar)(2.89km<sup>2</sup>)이다(Weningtyas, 2018). 반둥시의 인구는 주로 서부에 많이 밀집되는 반면, 동부에는 상대적으로 덜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9(a)). 그러나 2010-2020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 증감율을 살펴보면 10년 동안 반둥시 동부에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북서부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9(b)).

반둥시의 인구는 2020년 기준 2,444,160명이며, 이중 남성은 1,231,116명, 여성은 1,213,044명으로 성비는 101.49에 해당한다. 그리고 연령별 구성은, 15세 미만의 비율은 24.9%, 15~64세는 67.9%이며, 65세 이상은 7.2%로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반둥시의 노동 참여율은 2020년 기준 64.71%이며 실업률은 11.19%이다. 그리고 참여 노동력 중 정규직의 비율은 53.3%이고, 자영업 비중의 26.5%에 해당한다. 한편 반둥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이슬람교가 92.0%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외에도 개신교(5.3%), 가톨릭교(2.2%), 불교(0.5%), 힌두교(0.1%) 순이다. 이를 반영하듯 반둥시의 이슬람 사원의 수는 2,908개로 가장 많으며, 교회는 129개, 성당은 49개, 불교사찰은 7개가 분포한다(Badan Pusat Statistik, 2021).

반둥시는 중앙부에 알룬-알룬(Alun-alun) 광장이 위치하며, 광장 북쪽에 아시아-아프리카(Asia-Afrika) 거리가 인접한다. 알룬-알룬 광장은 1811년 반둥시 건설과 함께 조성되었다. 당시 서부 자바의 수도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반둥지역 식민 통치자 Wiranatakusumah II는 반둥의 중심지를 세 번 이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알룬-알룬 광장이 선정되었다(Widyaevan, 2015).

그림 11(a)는 1891년 반둥시의 지도를 나타낸 것이며, 당시 도시의 중심지는 알룬 광장과 네덜란드 총독 관저(빨간 점으로 표시)였다. 그리고 이 중심지는 바타비아와 반둥을 연결하는 Great Post Road(빨간 선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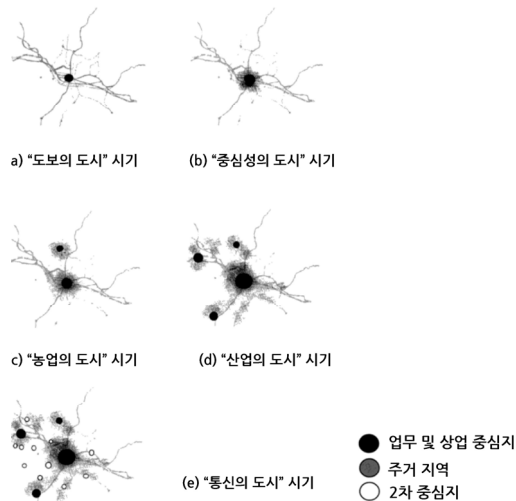


그림 8. 반둥 도시공간의 변화

출처 : Lim,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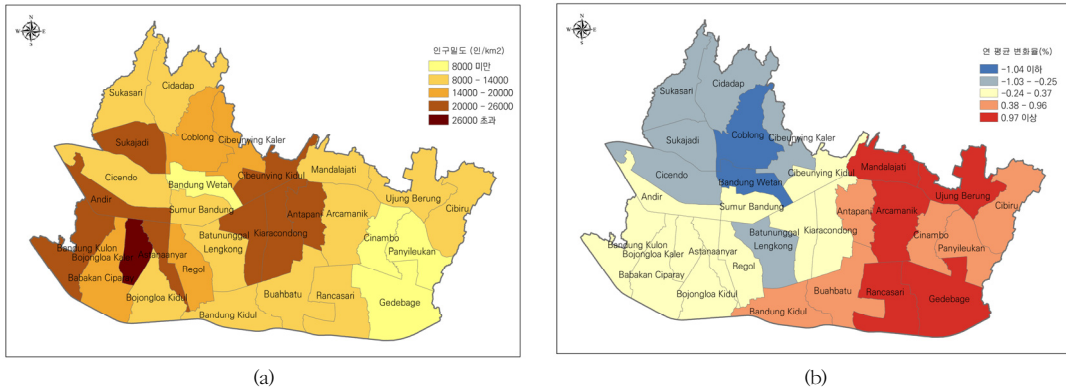


그림 9. 반둥시 행정구역별 인구밀도(2020)(a)와 2010-2020년 동안 연평균 인구 증감율(b)

\* Badan Pusat Statistik(2021)의 통계를 이용하여 지도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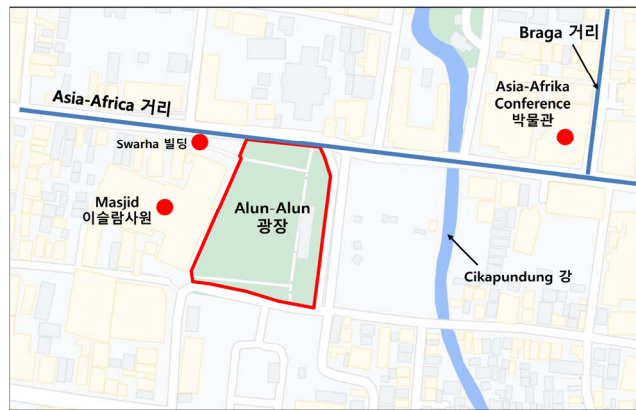


그림 10. 반둥시 중심지인 알룬-알룬 광장 주변지역

\* Google Maps의 지도에 주요 랜드마크를 표시하였음.

의 바로 남쪽에 위치하였다. 1905년에 들어 반둥은 Great Post Road와 반둥 철도 사이의 지역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그림 11(b); Nurwulandari and Kurniawan, 2020).

일반적으로 알룬-알룬은 개방된 광장을 동서남북 방향에서 4개의 도시 기능이 둘러싸는 공간배치를 지니는데, 광장 북쪽에는 왕궁, 서쪽은 이슬람 사원, 남쪽은 감옥, 동쪽에는 전통시장이 입지한다. 이러한 4방위 축 원리의 건물 배치는 자바의 전통사상에 근간하며, 알룬-알룬 광장도 이러한 공간 상징성을 지향한다. 그런데 실제로 반둥에 구현된 알룬-알룬 광장은 이러한 전통 배치 원리가 약간 수정되었다. 즉, 광장 북부는 네덜란드 식민통치와 관련한 업무, 우체국, 은행, 경제, 주거 지구로 조성되었다. 원래 있어야 할 왕궁은 북부가 아닌 광장

남부에 위치하면서, 그곳에 있어야 할 감옥을 대신하였다. 또한 광장 동쪽에는 전통시장 대신 영화관, 네덜란드 클럽 하우스가 입지하였다(Soemardi and Radjawali, 2004; Widyaevan, 2015; 그림 12).

반둥시 중심의 건축 건물에는 네덜란드 통치권력의 과시 의도가 반영되었으며, 알룬-알룬 주변에 새로운 유럽 스타일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동서양의 문화경관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후 광장주변에는 유럽 경관이 더욱 강화되었다(예, 신고전 양식의 계동사태(Gedung Sate)).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국제회의의 개최 준비로, 광장 바로 옆에 인터내셔널 양식의 Swarha 호텔이 들어섰고, 이후 들어서는 건물들도 이 양식에 영향받으면서 반둥의 전통성은 점차 약화되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반둥의 도시경관을 식민지 도시의 이상적인 전형으로 인식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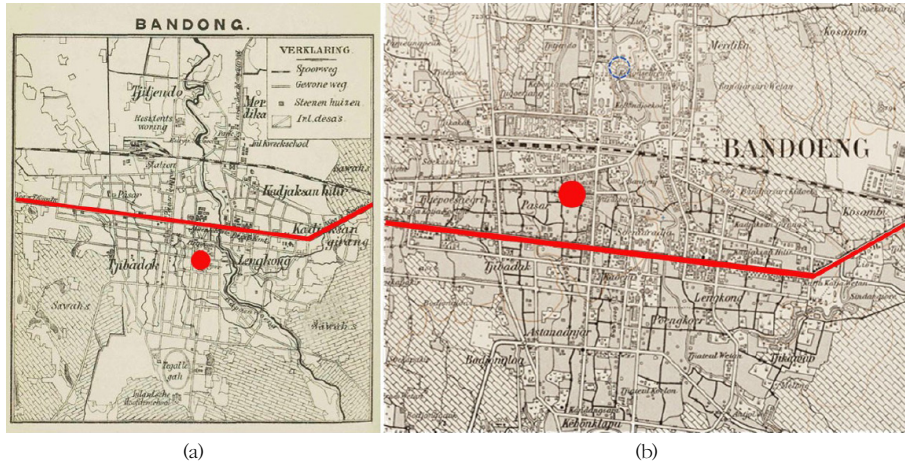


그림 11. 반둥시의 1891년 지도(a)와 1905년 지도(b)

\* 지도의 빨간 점은 총독 관저를, 빨간 선은 Great Post Road를 표시하였음.  
출처 : Nurwulanclari and Kurniawan,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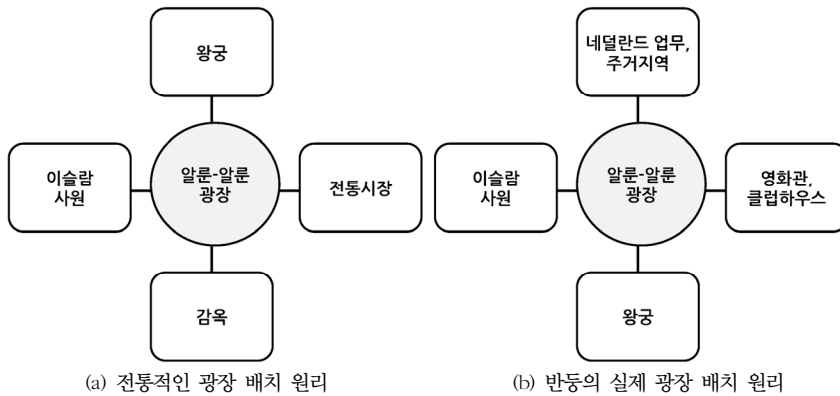


그림 12. 알룬-알룬 광장 주변의 공간 배치

\* Widyaevan(2015)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음.

다(Widyaevan, 2015).

또한 알룬-알룬 광장 주변에 쇼핑기능이 들어섰다. 1812년 반둥시 최초의 시장이 Kampug Ciguriang에 들어섰는데, 광장과 불과 450m 거리였다. 그런데 이 시장이 화재로 전소된 후 알룬-알룬 광장을 중심으로 반둥의 상권이 형성되었다. 1920년대 알룬-알룬 광장 옆 이슬람 사원 뒤쪽에 야시장이 활성화된 후, 광장 주변의 상권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규모 쇼핑몰들이 들어섰다. Miranmar, Palaguna 쇼핑몰이 광장 동쪽 클럽 하우스, 영화관을 대체하였고, 광장 남부 왕궁 근처 Dalem Kaum 지역에도 쇼핑몰이 들어섰다. 한편 광장 왼쪽 위치한 반둥 이슬람 사원(Masjid Raya Bandung)의

역할도 매우 컸는데, 이 사원의 건축경관도 점차 변모되었다(그림 13). 즉, 이 사원은 1812년 처음 건립 시 전통 양식의 목조구조였지만, 몇 차례의 개보수 과정(1826, 1875년 등)을 거쳐 현재 석조구조가 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자바 전통 이슬람, 네덜란드 식민지 양식에서, 주변 쇼핑센터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아, 현대 기하 양식으로 변모되었다(Widyaevan, 2015; Zaidan et al., 2020).<sup>8)</sup>

또한 반둥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브라가 거리(Braga street)가 있다. 알룬-알룬 광장 동쪽 인접한 브라가 거리는 식민통치 기간 유럽인의 주거, 공공, 문화 지역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 거리에는 유럽풍(특히, 아르데코 양식)의 건물, 카페, 레스토랑 등이 많이 분포하며, 이로



(a)



(b)

그림 13. 1950년대 반둥 이슬람 성당(a)과 현재 알룬-알룬 광장과 반둥 이슬람 성당(b)

출처 : Zaican *et al.*, 2020; 위키피디아.

인해 반둥시가 ‘자바의 파리(Paris of Java)’의 별명도 이와 관련된다. 반둥의 주축인 아시아-아프리카 거리와 T자형으로 만나는 브라가 거리의 원래 이름은 카레웨그(Karreweg)였는데, 초창기에는 마차가 간신히 오갈 정도로 좁았다. 그러나 1884년 바타비아-반둥 철도 개통 이후 이 거리는 반둥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Soemardi and Radjawali, 2004).

반둥시의 도시계획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먼저 식민지 수도를 반둥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1917년 반둥 북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반둥시는 먼저 반둥 철도 선 위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개발을 주도하였으며(그림 15(a)의 빨간색 지역), 주로 유럽인의 주거, 관광, 업무, 서비스 등의 용도였다. 반둥시 북부 개발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광, 여가 등의 목적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북부 중심에서 남쪽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15(b)는 1924년 도시계획 현황으로 반둥 철도 선 아래 지역까지 개발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개발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 초기 도시계획은 아르데코 등의 유럽 건축양식과 열대기후를 고려한 혼합된 건축양식이 유행하였다(Nurwulandari and Kurniawan, 2020).

시간이 지나면서, 반둥의 도시 영역은 점차 확장되었으며(예, 1930년대 도시면적이 33.1km<sup>2</sup>에서 1950년대 81km<sup>2</sup>로 확대), 넓어진 교외지역에 산업지구가 새로 조성되었다. 반둥 도시계획은 동심원 모델을 채택하였는데, 즉, 알룬-알룬 광장이 도시의 중심지였으며, 두 번째 링 지역은 알룬-알룬 광장을 둘러싼 주거 및 업무 지역이었으며, 근로자 주거지역이 세 번째 링 지역을 형성하였다. 현재 반둥시의 영역은 1987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

해 확정되었다(Tarigan *et al.*, 2016; 그림 14).

최근 반둥시 마스터플랜(RTRW Kota Bandung 2011-2031)은 미래의 도시공간 구조를 세 가지 수준에서 규정하였다. 첫 번째 도시 스케일에서는 1차 도시 중심지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스케일에서는 2차 중심지에서의 공간 역할을, 세 번째는 지구 스케일에서 소지역의 기능을 규정하였다. 이 마스터플랜은 알룬 알룬, 게데바게(Gedebage) 지역을 반둥시의 1차 중심지로 규정하였다. 특히 게데바게는 알룬알룬 중심지의 혼잡을 대체하는 의도를 가졌으며, 우기에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었지만 경기장 등 도시 인프라와 함께 IT 기반의 업무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였다(Tarigan *et al.*, 2016; 그림 16).<sup>9)</sup>

반둥은 한정된 도시 공간에 많은 기능이 밀집되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예를 들어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지향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Widyahari and Indrajati, 2015). 한편, 반둥은 인도네시아의 대표 스마트 도시이다. 2013년 반둥 시장 Ridwan Kamil이 주도한 스마트 도시 구상은 미래지향 차원에서 스마트 정부, 교육,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 등의 394개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Akbar and Sutrisno, 2017; Sholeh *et al.*, 2019).

## 2. 반둥 대도시 지역(Bandung Metropolitan Region)의 공간 특성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반둥 대도시지역(Bandung Metropolitan Region)은 행정구역상 반둥시(Band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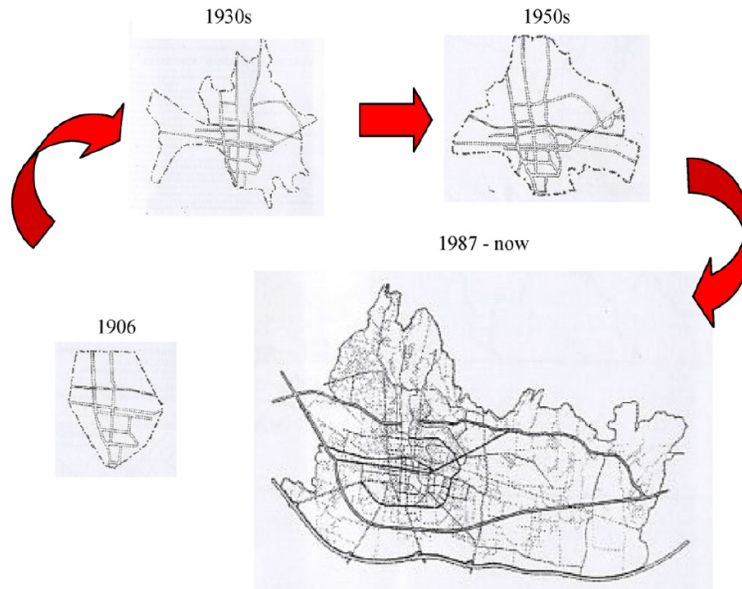


그림 14. 반등 도시공간의 확장(1906~1987)

출처 : Tarigan *et 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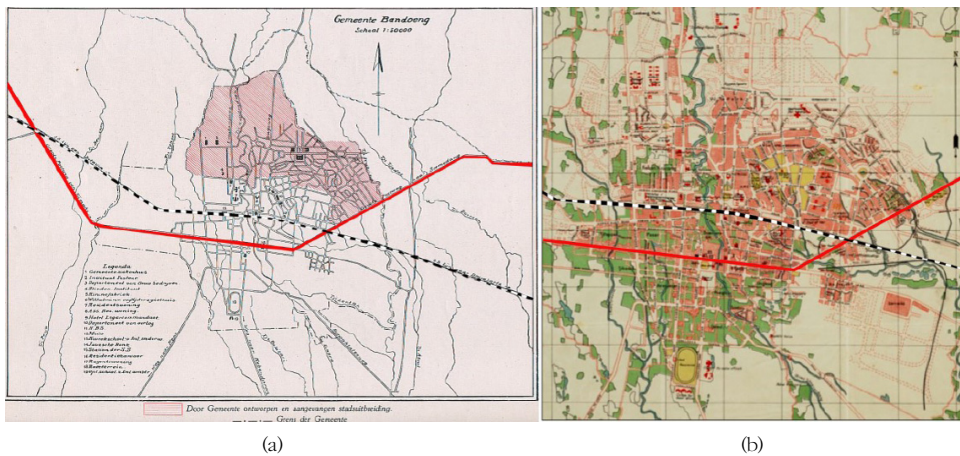


그림 15. 반등시의 1918년 도시계획(a)과 1924년 도시계획(b)

출처 : Nurwulanlari and Kurniawan, 2020.

city), 반등군(Kabupaten of Bandung), 치마히시(Cimahahi city), 서부 반등군(West Bandung Regency)과 함께, 수메당군(Sumedang Regency)의 일부도 포함한다(Firman, 1996). 한편 주변 서부 자바의 도시 분포를 간략히 살펴 보면, 반등의 서북부 170km의 거리에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하며, 자카르타의 교외지역에 베카시(Bekasi), 데폭(Depok), 보고르(Bogor) 도시가 있다. 한편 반등 대도시의 서쪽에는 수카부미(Sukabumi), 동쪽에는 타식말라야

(Tasikmalaya), 반자르(Banjar) 도시가 위치하며, 반등 대도시 지역에는 푸르와카르트(Purwakart), 시안주르(Cianjur), 가룟(Garut), 수메당(Sumedang), 수방(Subang)이 인접한다(그림 17).

반등 대도시지역의 면적은 약 3,500km<sup>2</sup>이며, 인구는 879만 명이다(2020년 기준). 이 지역의 인구는 1990년 530만 명, 2010년 790만 명, 2020년에는 879만 명으로 증가추세이다. 반등 대도시지역 전체 중 도시 인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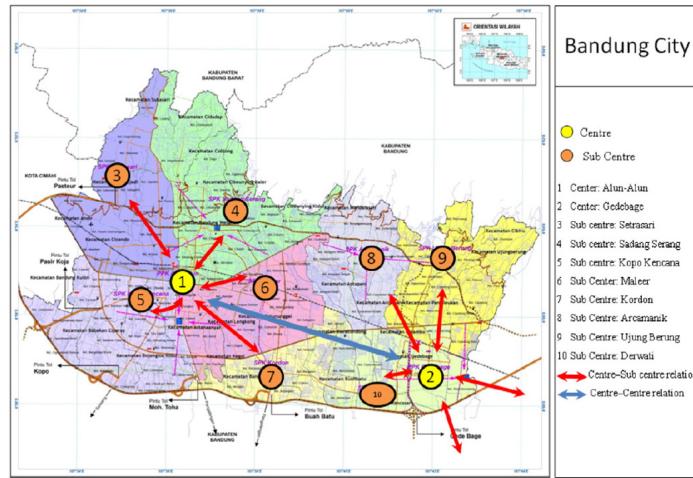


그림 16. 반동시(Bandung city)의 도시공간구조

\* 지도에서 반동시의 1차 중심지로 (1) 도시 가운데 알룬-알룬 지역, (2) 동부 게데바게 지역이 위치하며, 또한 2차 중심지가 (3)-(9)의 지역에 분포함.

출처 : Tarigan *et al.*, 2016.



그림 17. 서부 자바 지역(a)과 반동 대도시지역의 구성(b)

\* Maryati *et al.*(2016)을 참고로 작성하였음.

62.3%, 농촌 인구는 37.3%로 지역 내 격차가 존재하며 (예: 인구밀도도 반동시, 차마히시가 높은 반면, 군 지역의 인구밀도는 낮은 편임). 그러나 최근에는 반동시 보다 반동군 인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Firman, 1996). 이처럼 반동 대도시지역은 빠르게 주변으로 스프롤되고 있다. 특히, 반동 대도시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반동시 영역에서 빠르게 외부로 스프롤되는 결과를 할 수 있다(Ardiwijaya *et al.*, 2014; 표 3; 그림 18).

이 대도시지역은 중심도시와 교외지역 모두 도시문제

를 안고 있는데(Tarigan *et al.*, 2016), 먼저 과밀화된 반동시는 교통 혼잡, 환경오염, 슬럼화, 인프라 부족, 범죄 증가 등의 문제를 가진다. 한편 교외지역에서도 대규모 주택지역, 산업지구 조성 등으로 많은 녹지, 농지가 잠식당하고 있다. 또한 반동시와 교외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매우 열악하며, 교외지역과 연결된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50개 이상의 택지지구가 교외지역에 새로 조성되었는데, 이들 지구는 도시계획 측면의 종합적인 고려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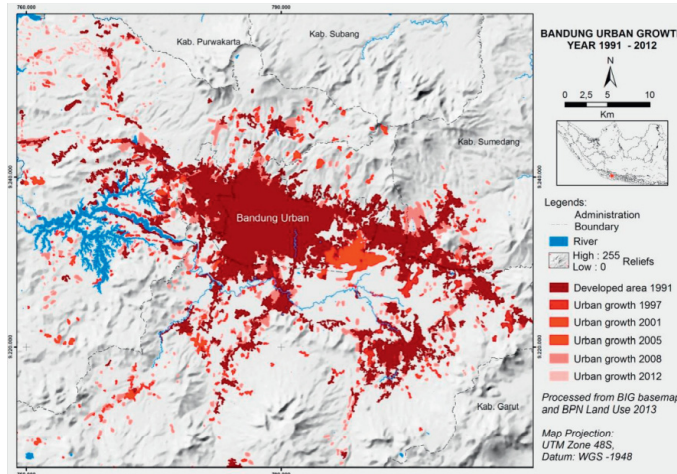


그림 18. 반동 대도시 지역의 도시 스프롤(1991-2012)

출처 : Ardiwijaya *et al.*, 2014.

표 3. 반동 대도시지역의 행정구역 현황

행정구역	면적 (km <sup>2</sup> )	인구 (2010) (인)	인구 (2020) (인)	인구밀도 (2020) (인/km <sup>2</sup> )
반동시	167.31	2,394,873	2,444,160	14,608.5
치마히시	40.37	541,177	568,400	14,079.8
반동군(Regency)	1,762.40	3,178,543	3,623,790	2,056.2
반동 서부군	1,305.77	1,506,448	1,788,336	1,369.6
수메당군(일부)	224.53	349,750	365,622	1,628.4
반동 대도시지역 전체	3,500.38	7,970,791	8,790,308	2,511.2

출처 : Statistics Indonesia, 위키피디아에서 재인용.

이 개발되면서,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부족하다. 반동 대도시지역의 교외지역 개발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Firman, 1996).

이에 반동 대도시지역에는 여러 도시 정책이 수립되었는데(예, “Repelita Kabupaten Bandung, 1989-1994”, “Konsep Pengembangan Bandung Raya”), 이들 정책의 핵심은 반동시의 혼잡을 완화하고, 교외지역에 소규모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반동 대도시의 교외지역의 거점으로 렘방, 란차에켁(Rancaekek), 반자란(Banjaran), 소레양(Soreang), 파달라랑, 짜짜랭카(Cicalengka) 등 소규모 도시가 선정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균형 계획이 20년간 계속되었지만, 반동시의 중심

성은 여전히 지배적이며, 주요 제조업, 비즈니스 활동은 반동시에 집적하고 있다. 즉, 중심지 기능을 분산시켜 교외지역에 2차 중심지들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였다(Firman, 1996). 이러한 대도시 분산정책의 실패 요인은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반동 대도시 지역에 대한 많은 지역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이들을 조정, 통제할 상위 주체가 부재하였으며,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 대립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둘째, 반동시는 경제활동에 유리한 인프라, 어메니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외지역의 소규모 도시보다 반동시가 더 선호되었다. 또한 반동시와 교외지역의 소도시 간 거리도 15~40km로 짧아, 교외지역 소도시들의 자족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일관성 없이 수행되었으며, 이 와중에 반동시는 계속 영역을 확대하면서 인접 행정구역을 잠식하였고 일부는 반동시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반동시의 지배력은 더욱 커진 반면 교외지역의 역할은 제한되었다(Firman, 1996).

최근 반동 대도시지역은 도시 중심지보다는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이는 그림 19에서처럼 대도시 스케일에서 중심도시(central city)와 인접한 도시와 농촌 특성이 혼재한 주변부-도시지역(peri-urban region)의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다. Budiyanini and Pratiwi(2016)는 반동 대도시지역을 사례로, 255개 행정구역의 자연, 인문현상의 18개 변수의 데이터를 토대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클러스터 분석 결과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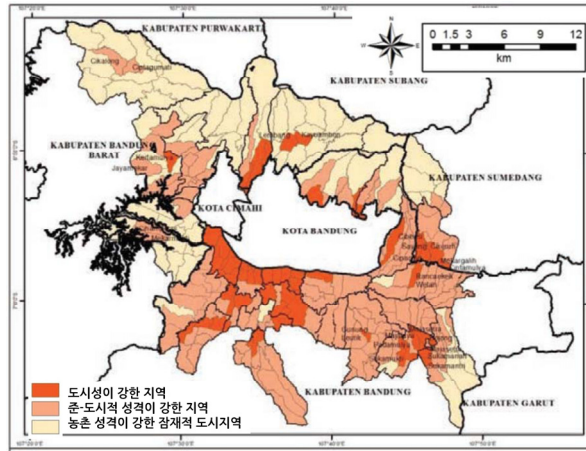


그림 19. 반둥 대도시 지역의 주변부-도시지역

출처 : Budiyantini and Pratiwi, 2016.

부 도시지역들을 3개 유형의 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즉, (1) 도시성이 강한 지역(predominantly urban), (2) 준-도시적 성격의 지역(semi-urban), (3) 농촌 성격이 강한 잠재적 도시 지역(potential urban)이다. 첫 번째 도시성이 강한 유형은 총 57개 지역이며, 이미 발전된 반둥시와 인접한 공간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와 농촌 특성이 혼재된 준-도시적 지역은 123개 행정구역이며 첫 번째 유형의 지역과 인접하여 외부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하고 고도가 높으며 농업적 토지이용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낮은 잠재적 도시지역은 75개 행정구역으로 반둥시와 거리가 떨어져 있다. 특히, 반둥의 주변부 도시지역에서도, 내부 교외지역(반둥시와 바로 인접한 외부 지역)과 외부 교외지역(Bandung Regency와 인접한 외부 지역)의 인구성장은 도시의 중심지인 반둥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반둥 대도시지역은 계속 성장하면서 도시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도시화 지역과 인접한 주변부-도시지역이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비도시적 토지이용(농지, 산림 등)이 지금은 산업, 주거 등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변모되고 있다. 반둥 대도시지역은 그동안 많은 도시 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다핵도시구조 보다는 단핵 공간구조를 유지하고 있다(Widyahari and Indrajati, 2015). 그렇지만, 반둥 대도시지역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과밀화된 반둥시보다는 인접하여 위치한 주변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도시-농촌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대도시지역인 반둥을 대상으로 도시지리 측면에서 도시의 역동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선진국의 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도시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다른 지역의 도시에 대해 지리적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열대기후 지역의 자바 섬에 위치한 반둥은 높은 해발고도 등으로 인해 다른 도시, 지역과는 다른 차별화된 역사와 특성을 가진다. 특히, 화산지형으로 인해 발생된 반둥 분지와 그 주변의 화산지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인문적 특성은 반둥을 다른 동남아시아 도시와는 구분되는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었다.

땅꾸반 프라후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반둥 분지에 위치한 반둥시와 이를 둘러싼 반둥 대도시지역은 높은 해발고도의 장점으로 인간생활에 최적이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네덜란드 식민통치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초기에는 차, 커피 플랜테이션으로, 이후 네덜란드인을 포함한 유럽인의 휴양지로 개발되었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와의 도로, 철도가 개통되면서 반둥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제 2위의 대도시로 발돋움 하였다. 반둥시의 도시구조는 전통적인 알

룬-알룬 광장을 중심으로 중심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북부에는 주로 네덜란드인의 중심 기능이 입지하였으며, 서쪽에는 이슬람 사원이 입지하였으며, 동쪽과 남쪽에는 쇼핑 및 상업 기능들이 들어서면서 발전하였다. 순다족의 주요 근거지 중의 하나인 반둥시는 전통적인 도시경관을 가졌지만,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 중 유럽풍의 건축양식과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입지하였으며, 이후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현대적인 건물과 기능들이 반둥시를 대표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동양 전통과 서양의 영향이 혼재된 도시경관은 반둥을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도시 성장과 함께 기존의 중심도시인 반둥시의 경계를 넘어, 도시영역이 주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변부 도시지역 등의 개념과 함께 도시-농촌의 상호 유기적인 공간 관계를 형성하는 반둥 대도시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대도시로서의 반둥은 다양하면서 풍부한 자연 및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등의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둥은 향후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도시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또한 미래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진국 및 국내의 대도시에 주로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 대한 지리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자 시도되었다. 해당 연구를 실증적으로 수행하는데 데이터 취득, 기존 선행연구의 부족 등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 여러 도시에 대한 연구에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註

- 1) 순다(Sunda) 용어는 산스크리트어 “Chunda”에서 유래되며, 과거 ‘빙하로 덮여 있던 산 정상’을 지칭하였다. 주로 서부 자바에 거주하는 순다족은 독자적인 언어, 문화를 가지며, 인구 규모는 약 4천만 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자바족 다음으로 크다(위키피디아).
- 2) 땅꾸뻏 뿌라후 화산은 반둥시에서 북쪽으로 20km 거리에 있는 활화산(해발고도 2,084m)이다. 이 지명은 화산 정상부가 배를 뒤집어놓은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명명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 3) 동인도 회사는 17세기 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아시아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무역, 식민통치의 전초 기지였다. 1600년 영국 동인도 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1602년 네덜란드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자바, 주변 섬을 정복하고 교역을 독점하였으며, 18세기에는 기존 교역 중심에서 플랜테이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 4) 반둥회의는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로도 불리는데, 1955년 4월 18~22일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대표가 모인 국제회의이다. 이 회의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5개국이 주최하였으며, 세계평화 및 협력추진에 관한 평화 10원칙이 발표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 5) 화산지형의 대표 관광지로 북부의 땅꾸뻏 프라후, 램방, 남부의 까와뿌띠(Kawah Putih) 칼데라 호가 있다. 램방 지역의 플로팅 마켓에는 호수공원과 순다 전통식 푸드마켓이 있다. 그리고 반둥 주변에는 사웅다웡(Saung Daweung), 아캄니크(Arcamnik) 등의 산림이 분포한다. 또한 플랜테이션과 관련하여 반둥 남부의 말라바 차 재배지, 남서부 란짜발리(Ranca Bali)의 홍차 재배지 등이 있다(Permana and Wijaya, 2017).
- 6) 리아우(Riau), 세티아부디(Setiabudi), 듀안다(Djuanda) 거리를 중심으로 주요 아울렛이 분포하며, 치햐펠라스(Cihampelas) 거리를 따라 일명 ‘청바지 거리 (Jeans Street)’가 형성되었다(Permana and Wijaya, 2017).
- 7) 약 7세기 경 이후 전통의례에 사용된 대나무 악기 앙클룽은 풍요의 신 데위스리(Dewi Sri)를 기리기 위해 연주되었으며, 2010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Permana and Wijaya, 2017).
- 8) 알룬-알룬 광장은 정치적 상징성도 지닌다.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처럼 알룬-알룬 광장은 시민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각종 정부 행사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부는 치안 등을 이유로 오픈된 광장에 큰 울타리를 설치하여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 정부는 도시 남부 테갈레가(Tegallega)에 새로 중심지를 조성하려 하였지만 시민의 호응 부족으로 실패하였다(Widyaevan, 2015). 복합적 역사를 지닌 알룬-알룬 광장은 현재 여전히 반둥시



의 대표 중심지로서, 현재 이슬람의 신성공간, 주민활동과 모임의 공간, 관광 및 역사 중심지, 사회, 문화행사의 개최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Widyaevan, 2015; Zaidan *et al.*, 2020).

- 9) Bandung Mayor Regulation No.921(2010)에 의하면, 반등시 공간은 건물특성, 환경, 커뮤니티 등의 측면에서 6개 지역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1지역(Historic city center area)에는 많은 역사유산의 건물, 커뮤니티 중심지, 관광지 등으로 구성되며, 알룬-알룬 광장, 아시아-아프리카 거리, 반등 정부청사, 브라가 거리 등이 있다. 2지역(Chinatown/Trade area)은 알룬-알룬 광장 북서쪽에 위치하며, 사원, 파사르 baru(Pasar Baru)라는 새로운 시장을 포함한 상업 중심지로서, 중국인이 밀집되어 있다. 3지역(defense area and security/military)은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기 주요 거점이었으며, 많은 역사유산과 군사기능이 분포한다. 4지역(Sunda ethnic area)은 순다족의 거점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테갈레가 광장은 반등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5지역(villa and non-villa residential area)은 주거지역 외에도 문화유산 건물이 많이 분포하며, 일부는 네덜란드 건축양식을 띤다. 이 지역은 반등시 북부, 고원에 위치하며 온화한 기후로 유럽인이 선호하였다. 6지역(industrial estate)은 산업지구로서 제품 생산, 판매 관련 기능이 입지한다(Chang and Hasanah, 2020).

## 참고문헌

- 신정엽·김감영·김영호 역, 2019, 「도시 공간을 보다,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정엽·오동훈, 2019, “Paul Wheatley의 고대도시와 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사고에 대한 재고찰” 지리교육논집 63, 15-38.
- Akbar, I. and Sutrisno, B., 2017, The implementation of Bandung smart city to improving the welfare of its citizens,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143, 34-37.
- Ardiwijaya, V.S., Soemardi, T.P., Suganda, E., and Temenggung, Y.A., 2014, Bandung urban sprawl and idle land: Spatial environmental perspectives, *APCBEE Procedia*, 10, 208-213.
- Badan Pusat Statistik, 2021, *Kota Bandung Dalam Angka: Bandung Municipality in Figures 2021*, Badan Pusat Statistik Kota Bandung / BPS-Statistics of Bandung Municipality.
- Budiyantini, Y. and Pratiwi, V., 2016, Peri-urban typology of bandung metropolitan area,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7, 833-837.
- Chang, B. and Hasanah, A., 2020, Bandung city features characteristics based on cultural ge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s*, 10(7), 46-53.
- Dam, M.A.C., Suparan, P., Nossin, J.J., Voskuil, R.P.G.A., and GTL Group, 1996, A chronology for geomorphological developments in greater Bandung area, West-Java, Indones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Earth Science*, 14(1/2), 101-115.
- Firman, T., 1996, Urban development in Bandung metropolitan region: A transformation to a desa-kota region, *Third World Planning Review*, 18(1), 1-21.
- Gertisser, R., Self, S., Thomas, L.E., Handley, H.K., Van Calsteren, P., and Wolff, J.A., 2012, Processes and timescales of magma genesis and differentiation leading to the great Tambora eruption in 1815, *Journal of Petrology*, 53(2), 271-297.
- Lim, M., 2002, From walking city to telematic metropolis: Changing urban form in Bandung, Indonesia, in Bunnell, T., Drummond, L., and Ho, K., eds., *Critical Reflections on Cities in Southeast Asia*, Singapore: Times Academic Press, 75-100.
- Maryati, S., Humaira, A.N.S., and Putri, H.T., 2016, Relationship between solid waste service characteristics and income level in Metropolitan Bandung Raya, *MIMBAR: Jurnal Sosial dan Pembangunan*, 32(2), 233-242.
- Naoko, S., 2012, Places in diplomacy, *Political Geography*, 31(6), 335-336.
- Nurwulandari, R. and Kurniawan, K.R., 2020, “Europa in de Tropen”: The colonial tourism and urban culture in Bandung, *Journal of Architectural Design and*

- Urbanism*, 2(2), 15-23.
- Permana, A.Y. and Wijaya, K., 2017, Spatial change transformation of educational areas in Bandung,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99(1), 012029.
- Setiawan, I., Indarto, S., Fauzi, A., Yuliyanti, A., Lintjewas, L., and Alkausar, A., 2018, Geothermal and volcanism in West Java,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118(1), 012074.
- Sholeh, C., Sintaningrum, S., and Sugandi, Y.S., 2019, Formulation of innovation policy: Case of Bandung smart city, *Jurnal Ilmu Sosial Dan Ilmu Politik*, 22(3), 173-186.
- Soemardi, A.R. and Radjawali, I., 2004, Creative culture and urban planning: The Bandung experience, *The Eleventh International Planning History Conference*.
- Tarigan, A.K., Sagala, S., Samsura, D.A.A., Fiisabilillah, D.F., Simarmata, H.A., and Nababan, M., 2016, Bandung City, Indonesia, *Cities*, 50, 100-110.
- Weningtyas, E.W., 2018, *Data Collection Report on Sustainable Urban Transport Index: Phase 1*,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 Widyaevan, D.A., 2015, The change of public perception toward Alun-alun Bandung as a city center,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84, 135-143.
- Widyahari, N.L.A. and Indradjati, P.N., 2015, The potential of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and its opportunity in Bandung metropolitan area, *Procedia-Environmental Sciences*, 28, 474-482.
- Zaidan, Y.F., Priyatna, A., and Mulyadi, R.M., 2020, Place of Worship as capital spa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sjid Raya Bandung and shopping centers, *Wawasan: Jurnal Ilmiah Agama dan Sosial Budaya*, 5(2), 137-156.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 ESRI Land Cover 2020, <https://livingatlas.arcgis.com/land-cover/>
- Google Maps, <https://maps.google.com>
- Smithsonian Institution National Museum of National History, Global Volcanism Program, <https://volcano.si.edu/volcano.cfm?vn=263090>
- Statistics Indonesia, <https://www.bps.go.id>
- 교신 : 신정엽,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geoshin@snu.ac.kr)
- Correspondence : Jungyeop Shin,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shin@snu.ac.kr)

투고접수일: 2022년 5월 19일  
심사완료일: 2022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2일